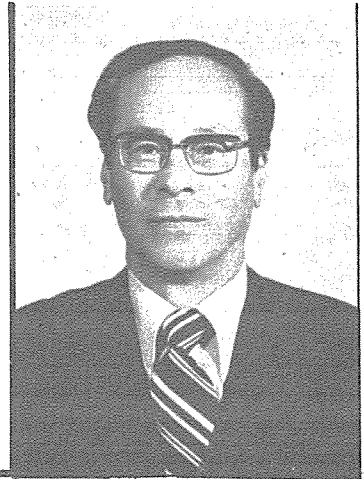


善意的 競爭있어야 學問發展 있다.

金玉準 博士篇



약 력

- 1916. 8 江陵市 出生
- 現住所 서울特別市 東橋洞 187의 17
(TEL : 32-1896)
- 1938 秋田鉦山專門學校 採鉦學科卒
- 1943 東北帝大 理學部 岩石鉦物 鉦床學校
室卒 (理學士)
- 1946 서울大文理大 專任講師·助教授
- 1951. 8 美콜로라도 鉦山大學修了 (理學碩士)
- 1954. 10 美콜로라도大學 修了 (理學博士)
- 1955. 3 서울大學校 待遇教授
- 1955. 11~61. 1 地質調查所長
- 1960 學術院會員
- 1961. 5 國家再建最高會議 企副委員
- 1962 地下資源調查所長
- 1965 九童鉦業社長
- 1967 延世大 理科大 教授. 學長 2 回歷任
- 1970 大韓地質學會長
- 1974 大韓鉦山地質學會長
- ▲ 賞勳 서울市 文化賞 ('59)
國民勳章冬栢章 ('70)
學術院賞 ('72)
- ▲ 論文 Precambrian Complex of the Hall
Valley Area, Front Range.
- ▲ 研究實績
- 國內鉦床의 生成時期와 光상구의 研究 ('68~)
- 沃川系의 層序와 地質構造의 연구 ('67~'68, '69~)
- 其他 國內外 發表論文 약50編

◇ 高校時節엔 文學家 꿈꿔 ◇

경성제일국립보통학교(京畿高)를 다니던 시절은 학생들 대개가 사회주의적인 책을 많이 읽던 시절이어서 그같은 책을 읽지 못하면 학생층에도 들지 못하던 때였다.

나도 자연스럽게 전문적이기 보다는 흥미를 갖고 읽게 되었는데 학교자체가 일본인 주관하에 있어 反日감정으로 反抗意識이 팽배했던 때문이기도 했다.

졸업할때까지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스트라이크가 두·서너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의 학생시대와는 좀 다른 양상이었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졸업을 앞두고 집에서는 자꾸 醫學을 공부하라고 했지만 내생각은 원래 文學을 하려는게평소의 꿈이었다.

5학년때 당시 중앙일보의 신춘문예 현상모집에 출품한 단편소설이 예선에 들은 적도 있고 해서다. 題目은 「太陽은 웃는다」로 젊은 학생들이 異性에 눈을 뜨면서 사랑을 나누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집안에서의 반대로 꿈과는 달리 日秋田鉦山專門學校에 응시하게 되었다.

속 마음때문에 형식적으로 치룬 시험이었으나 이것이 합격되어 결국 이學校의 채광학과(요

즘의 資源工學科)에 진학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인으로는 나를 포함해 모두 일곱사람이 입교했다.

기숙사 생활에 들어가면서 우연한 기회에 선배들의 권유에 따라 럭비를 시작했다 운동선수 생활을 하니 자연히 학업에는 등한해졌으나 이제까지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게 아니라 協同精神을 통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 선배권유로 地質學 專攻 ◇

3년만인 1938년 秋田專門校 卒業後엔 日古河鋳業株式會社에 취직, 東京부근에 있는 足尾銅山에서 3年間의 실무경험을 쌓았다.

물론 그곳엔 한국사람은 나혼자였는데 갱내 근무로 어떤때는 하루종일 햇빛구경도 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竹内라는 地質學을 專攻한 日人선배가 大學에 다시들어가 地質學을 공부해 보는게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했다. 나도 직장일에 싫증이 나던차라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941년 日本 東北帝國大學에 응시했다.

여기에서도 무난히 합격, 鉱物岩石鋳床學敎室에 들어갔다.

이 科는 학생수가 고작 7名뿐이어서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나는 의욕적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다.

학업도중 (東北大 3학년)에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이겨 당시 梨花女專(梨花女大)에 다니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

◇ 서울대에 地質學科 創設 ◇

東北大를 졸업하자 학교의 주선으로 바로 製鐵株式會社의 방계회사인 日鐵鋳業株式會社에 취직, 서울支社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製鐵原料 鉱物인 철광석, 석회석, 만강광석, 형석등을 주로 조사하는 직책을 맡아 자연히 함경도지방으로 조사를 나가곤 했다.

2년 남짓 근무하다 해방을 맞자 다음해인

1946년 봄 京城大學(現 서울大)에 전임강사로 교단에 서게 됐다.

당시 地質學 分野를 專攻한 교수는 모두 세명으로 東京帝大출신의 金鍾遠선생, 北海道帝大출신의 孫致武선생등 세명과 함께 地質學科를 創設, 國內의 大學으로선 처음으로 地質學徒를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 꿈많은 美留學길에 올라 ◇

강의에 열도 올려봤지만 새로운 外國學問에 접해보고 싶은 욕망이 점차 이는 데다 아내의 권유도 있고 해서 美國留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침 실시된 유학시험에 地質學 分野에서는나를 포함한 세사람이 응시했으나 다행히 내가 합격, 美國이 學術研究資金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게리오아·스카라 칩을 얻어 1949년 8월 美 콜로라도鋳山大學 大學院 地質學科에 들어갔다.

2년간의 M·S학위연구과정에서 學問의인 見解差로 現地 연구팀과 다툰적도 많았다.

당시 록키山脈一部의 地質調査資料는 1800년대末의 조사결과에 의한 것으로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 내가 자주 反論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중에 새로이 조사해 보니 내가 옳았다는게 立証되곤 했다.

연구활동에 열중하던중 1950년 6·25가 발발하자 마음이 뒤숭숭하고 공부에도 집중이 안돼 美軍소집에 자원했으나 연령이 6개월이 지났다고 받아주지 않는 바람에 실패로 끝난적도 있다.

할수없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머지 연구과정을 끝내고 M·S학위를 받았다.

모두 마치고 귀국하려 하자 좀더 공부를 계속해 보는게 어떠냐는 집에서의 권유에 따라 다시 콜로라도大學 大學院에 입교, 박사학위 코스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2년간인 게리오아·스카라 칩의 유효기간이 이미 끝나 학비조달을 위해서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기도 하고, 대학과 국무성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의 경험 중 기억나는 것은 댐공사장에 나갔는가 하면 심지어는 접시닦는 일도 마다할 수 없었다.

각고끝에 1954년 10월「Precambrian Complex

of the Hall Valley Area, Front Range」라는 학위 논문을 제출, PHD(地質學博士) 학위를 받았는데 지질학에 있어 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韓國人으로서는 내가 처음있는 일이었다.

◇ 地質調査所 再建에 盡力 ◇

地質調査所에 關係하게 된 것은 解放을 맞아 日本治下에 만들어졌던 이 조사소가 韓國인 손으로 넘겨지면서 부터다.

당시 노량진에 위치했던 이 조사소를 선배인 朴東吉선생이 인제를 맡았으나 그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나보고 주선하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잠시나마 地質學分野에 關係했던 사람들을 모두 규합, 정상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6·25動亂으로 因해 釜山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온 이 조사소는 그나마의 시설도 없어지고 인원도 흩어져 영망진창인 상태가 돼버렸다.

美國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1955년 도에는 하더라도 조사소의 인원은 10명이 못되었고 地質學을 하는 사람은 고작 1명뿐이었다.

이같이 황폐한 가운데 學會側에서도 나에게 지질조사소를 다시 再建시켜 볼 생각이 없느냐는 은근한 권유가 있었다.

그래서 1955년 11월에 韓國地質調査所 所長으로 취임했다.

물론 당시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꼭 한번 일으켜 봐야겠다는 각오아래 결심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1961년 1월까지 조사소를 이끌어오면서 어려웠던 일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일할 專門家들이 없는데다 雪止加霜格으로 予算도 없었다. 당시 政府엔 아무리 얘기해 봐야 별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중 USOM의 지질학 또는 釜山學界 출신자들이 지질조사소의 필요성을 인정, 원조를 얻게 됐다.

이리해서 數年동안 약 3百萬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 學界書籍, 실험施設을 들여 오는등 일단 기초를 닦았다.

그러자 政府에서도 차츰 관심을 갖기 시작,

얼마간의 予算을 배정받게 됐다.

그러나 액수는 극히 미약해 획기적인 발전에 이렇다할 도움은 되지 못했는데 그도 그럴것이 당시 立法機關이나 정책수립자들은 地質學에 대해 전혀 인식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임기간이 긴 특성을 理解하지도 못했고 돈을 넣으면 鐵이 꼭 몇億원어치가 나오는가 하는 효과만을 기대하는게 그때 政府 關係자들의 생각이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 資源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없는지 하는것도 하나의 사업성과가 될수 있는데 그같은 認識이 돼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떤 장관은 '땅속에 있는데 어디 가느냐, 이 다음에 개자'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퍼는 사례도 있었던 실정이었다.

◇ 權威앞세운 學會風土 배격 ◇

서울大學 以外的 大學에도 地質學科를 創設하자는 지질조사소장 재임시절의 내 설득에 따라 1965년엔 延世大學校에도 지질학과가 創設됐다.

이로써 계속하여 高大, 慶北大, 釜山大등 앞으로의 地質學科 創設에 하나의 촉진제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地質學科 創設에 대해 학회에서는 반대론이 많았다.

졸업후 취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른다는게 그 이유중의 하나였으며 하나는 國內學회의 풍토가 아주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했었다는 데에 있다.

그때만 해도 美國등 선진외국학문에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인양 하는 권위의식에 사로 잡혀있기 일수였다. 그같은 권위의식을 나는 가장 싫어했다.

학문이란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다. 내가 조사했는데 또 네가 무언데 조사를 하느냐 하는 편협된 사고는 없어야 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 研究施設 아직도 뒤져 ◇

민주당 시절에는 경제개발 제 1차 5개년 계획을 입안한 적도 있으며 5·16후에는 그해 5월 계획위원으로 위촉, 반년가량 정책수립 과정에도 참여해 봤다.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에 비하면 교육계나 연

구기관에 지원이 부족하여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도 소홀한 감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같은 상황에 있을때 대만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질분야에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아직까지도 大學에서 지질학을 연구한다는게 말 뿐이라는게 과언은 아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기초적인 연구를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지질학의 경우 기본적인 야외조사로 우리나라의 地質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나타나 있는 사실을 조사하는데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으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초적인 연구는 전연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일·쇼크를 생각해 보더라도 資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겠다. 각국에선 그것을 계기로 소위 자원국가주의가 일고 있지않는가.

우리도 요즘엔 인식이 향상되어 가곤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蘇聯의 경우 제 1 차대전때만 하더라도 지질학자는 고작 12명이었으나 오늘날엔 美國보다 훨씬 많아, 美國이 약 10만명인데 비해 소련은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國力을 倍養하는 기초가 우선 지질학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해야겠다.

현재 우리나라엔 단적으로 地下資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조사가 나와있지 못하다. 자원의 정확한 매장량도 조사되지 못했다.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본 자원조사, 그리고 개발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 화강암 生成期 새로 밝혀 ◇

지금까지 지질학을 연구해오면서 국내에서 조그만하나마 공적으로 꼽을수 있다면 우리나라 화강암의 생성기를 밝힌 것이다.

1962년~3년까지만 해도 과거 日本人이 조사했던대로 화강암은 백악기로 알아 왔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조사결과 유라기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鉾床의 분포지역과 형성된 시기에 대해 연구해 鉾床의 성인시기와 광상구를 처음으로 알아 보으며, 변성암에 대해 지층의 분류, 지질

구조를 밝혀 낸 것도 자부할 수 있는 공적이라 하겠다.

◇ 學會創設은 많을수록 좋아 ◇

우리 손으로 大韓地質學會가 創設된 것은 1946년이다. 그 당시의 地質學界의 人士란 몇명되지 않았다.

初代會長은 地質學界의 元老인 朴東吉 博士가 맡았으며 北海道大學 出身인 崔裕久 先生과 선배 孫致武 先生, 東京大學 出身인 洪葛變 先生과 나, 의 金正권 先生, 京都帝大 출신의 金漢台 先生 등과 10여명이 창설멤버였다.

그후 1968년에 大韓鉾山地質學會가 발족되었다.

이에 대해 요즘도 왜 자꾸 學會를 만드느냐고 불만스럽게 묻는 얘기를 듣고 있다. 더우기 안타까운 것은 學問을 하는 사람들도 이같은 얘기를 한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學問은 무엇인가. 파고 들면 들수록 細分되는게 아니겠는가.

細分되는게 世界學問의 추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데다 묶어 둘러고 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醫學部門에서 學會가 얼마나 있는지는 다 알 것이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 大韓醫學會라고 한다면 되겠는가!

學問의 추세가 發展하면 할수록 자꾸 細分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지질분야라 해도 이쪽하는 사람은 저쪽을 잘 모르며 이것이 오늘날 학문의 발전추세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學會가 여러개가 생긴다는 것은 學問이 자꾸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지언정 하나도 나쁠 것은 없는 것이다.

地質分野만 보더라도 外國에선 學會가 10個가 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두개 밖에 없다.

大韓地質學會가 있고 大韓鉾山地質學會가 있는데 鉾山地質學會는 지질학분야 가운데서도 응용지질분야를 다루는 學會인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도 地質分野에서 학위수여자가 수십명에 달하고 있으며 地質學科가 생긴 곳이 8개 大學으로 늘어난 것도 하나의 發展이라고 볼 수 있다.